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요약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은 모기, 벼룩, 이 등의 벌레에 물린 부위의 가려움과 통증을 경감시키는 약물이다.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국소마취제, 항염제 등이 함유된 복합제가 주로 사용된다. 피부를 화끈거리게 해서 가려움을 감소시키는 DL-카파 함유된 제품은 30개월 미만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어 표기

itch relief solution after insect bites(영어)

유의어·관련어: 진양제, 鎮痒劑, 가려운 데 바르는 약, antipruritics

약리작용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은 벌레에 물린 부위의 가려움과 통증, 부종 등의 염증반응을 경감시키는 약물이다. 모기, 벼룩, 이 등의 벌레에 물리게 되면 벌레의 타액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 혈관에 방출되는데, 이 때 우리 몸은 벌레의 타액에 들어있는 물질을 이물질로 여겨 히스타민*을 방출하기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가려워진다. 이와 같이 가려움증과 염증반응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에 국소마취제, 피부염 치료제, 발적제(혈관을 팽창시켜 피부를 붉게 만드는 성분) 등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를 사용한다.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약한 부신피질 호르몬제 외용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 성분의 단일제를 사용할 경우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하도록 한다.

진드기, 쯤진드기 등은 벌레가 아니며, 물리게 되면 단순한 가려움을 넘어서 리케차[†] 등에 의한 감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벌레에 물린 자국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보통은 일반 벌레에 물린 데 바르는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수일간 사용하여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고열, 근육통, 심한 부종과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

* 히스타민(histamine): 외부자극에 대한 신체의 방어 기전으로 분비되는 화학매개 물질 중의 하나이며, 발적, 통증 등의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주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상처치유에 필요한 단백질과 백혈구의 이동을 돕는다.

† 리케차(rickettsia):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가진 미생물이다. 진드기나 벼룩 등의 절지동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진티푸스, 쓰쓰가무시병 같은 질병을 일으킨다. 리케차에 감염되면 오한,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종류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에는 항히스타민제, 국소마취제, 기생성 피부질환 치료제, 자극성 피부염치료제, 피부 발적제, 청량제, 상처, 궤양 치료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이 복합되어 있다. 각 약물들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항히스타민제

국소 부위에서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하여 가려움증,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한다.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등이 사용된다.

국소마취제

신경 자극의 발생과 전도를 억제함으로써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킨다. 디부카인, 리도카인 등이 사용된다.

기생성 피부질환 치료제

각종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고 살충효과가 있어서 옴*의 감염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크로타미톤이 사용된다.

* 음(scabies): 음 진드기(Scabies mite)에 의해 발생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한 피부감염 질환이다. 야간 가려움증이 심하다.

자극성 피부염 치료제

자극 완화, 항염, 진통 작용을 나타낸다. 감초에서 추출된 에녹솔론(글리시레틴산), 글리시리진산 등이 사용된다.

피부 발적제

피부를 화끈거리게 해서 가려움증을 감소시킨다. 살리실산메틸, 살리실산글리콜, DL-감파 등이 사용된다. 살리실산메틸, 살리실산글리콜은 피부에 흡수되면 통증을 유발하는 화학매개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COX 효소를 억제하여 진통효과도 나타낸다. DL-감파는 30개월 미만의 소아에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약물이 포함된 제품은 30개월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청량제

피부를 시원하게 하여 가려움증을 감소시킨다. 주로 L-멘톨이 사용된다.

상처, 궤양 치료제

손상된 피부 조직을 재생시킨다. 덱스판테놀이 주로 사용되는데 피부에서 판토텐산으로 전환되어 작용을 나타낸다. 소아용 크림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신피질 호르몬제

면역계를 조절하여 염증반응을 억제한다. 프레드니솔론 등이 사용된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은 액제, 크림, 젼제 형태로 사용되는데, 함유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에 차이가 있다. DL-감파가 함유된 복합제는 30개월 이상의 소아와 성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DL-감파가 함유되지 않은 소아용 항히스타민제 복합제 크림은 1개월 이상 소아에게서 사용할 수 있다.

Table 1.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의 종류와 제품 예

사용 연령	약물	제품 예(제형)
1개월 이상 사용	디펜히드라민+텍스판테놀+글리시리진산+토코페롤	물린디키드®(크림)
30개월 이상 사용	디펜히드라민+디부카인+에녹솔론+살리실산메틸+L-멘톨+DL-캄파	버물리®(액제, 겔제)
	디펜히드라민+디부카인+크로타미톤+에녹솔론+L-멘톨+DL-캄파	계안®(액제), 씨버쿨®(액제)
	디펜히드라민+디부카인+에녹솔론+L-멘톨+DL-캄파	리카에이®(크림), 버레물®(액제)

효능·효과

벌레에 물린 부위의 가려움, 통증 등의 완화에 사용한다.

용법

1일 1회~수회 질환 부위에 적당량을 바른다.

금기

- DL-캄파는 소아에게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DL-캄파를 함유하고 있는 복합제는 30개월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소아용 항히스타민제 함유 복합제 크림을 생후 1개월 미만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눈 주위,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씻는다. 습진, 상처 부위,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벗겨진 피부 표면 또는 물집이 있는 부위에 다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함유된 제제는 환부가 광범위한 경우, 수두, 무좀, 백선*, 화농(고름)이 있는 부위에 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백선: 백선균(Trichophyton(T. rubrum, T. mentagrophytes, T. verrucosum, T. violaceum)), 소포자균(Microsporum canis) 및 표피균(Epidermophyton floccosum)과 같은 피부사상균에 의해 피부각질, 손발톱, 털 등에 일어나는 피부질환 으로 진균 감염의 일종

주의사항

-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을 사용한 후 발진, 발적, 가려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5~6일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 다른 약이나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발진, 발적, 가려움, 부종 등)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 습 윤이나 짓무름, 염증이 심한 사람,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 소아용 항히스타민제 복합제 크림을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사용 시 발진, 발적, 가려움,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 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 청소년 사용

-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한다.

- DL-캄파는 소아에게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DL-캄파를 함유한 복합제는 30개월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